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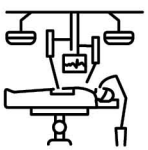
부천성모병원

로봇수술의 새로운 메카 부상

로봇수술 개시 2년 2개월 만에 1,000례 돌파
인·부천 대학병원 중 최단 기간 달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로봇수술을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에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제4세대 다빈치Xi 시스템을 도입하여 첫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단기간 100례, 200례를 연달아 돌파하며 우수한 임상 성과를 거뒀다.
부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간담체외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장관외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장 산부인과 이해남 교수는 “부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단기간에 1,000례를 달성할 수 있기까지 노력해 준 의료진과 믿고 찾아준 환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수술로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1,000례 돌파를 기념하며 최신 로봇수술 술기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로봇수술 최신 동향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로봇수술에
특화된
최고의 실력 갖춘
전문 의료진**



**맞춤형
환자 관리 시스템
운영**



**환자 개인별
질환 진행 상태,
수술 난이도 고려한
특화 진료**



**출혈·흉터·부작용
적고
회복 빠른
안전한 수술**





다관절 복강경 수술, 수술 성공률 높이고 합병증 감소

은평성모 표대희 교수팀, 개복 전환율 0%·로봇수술 수준의 정밀도 구현



표대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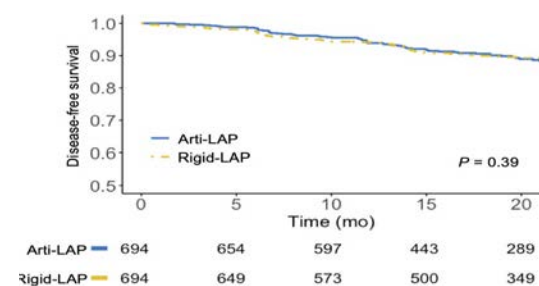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표대희 교수,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재임 교수가 참여한 다기관 연구에서 다관절 복강경 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술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7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장암 환자 총 2,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다관절 복강경 기구를 사용한 수술과 기존 복강경 수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술의 성공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복강경 수술에서는 약 1.0%의 개복 전환율이 있었으나, 다관절 복강경 기구를 사용한 환자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개복 수술로 전환되지 않았다. 또한, 합병증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기존 복강경 그룹의 합병증 발생률이 12.8%였던 반면, 다관절 복강경 기구 그룹에서는 9.5%로 낮아졌다. 더불어, 다관절 복강경 기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다관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좁고 깊은 부위에서의 수술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더욱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표대희 교수는 “다관절 복강경 기구를 활용한 수술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 골반이 좁은 직장암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이 기구는 기존 복강경 장비와 호환되면서도 로봇수술 수준



의 섬세한 수술을 구현할 수 있어 복강경 수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12.5)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시니어 대상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 방법 확립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전지원 교수팀, AI·디지털 의료 환경의 건강 불평등 해소 기대



전지원 교수·김성민 연구원(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학과사업단의 전지원 교수(교신저자, 의료정보학교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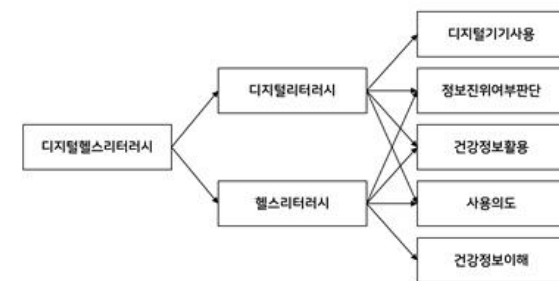
김성민 연구원(제1저자, 의료정보학교실)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환경에 필요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의료계 전 분야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격차로 인해 노년층이 디지털 헬스

케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S(DIDIM ; Digital health literacy Improving and Digital health Information Messaging services for Senio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니어 대상 디지털 의료 환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 도구를 개발했다.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초기 문항을 설계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25 문항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척도가 개발됐다.

이번 평가 도구 개발과 함께 건강 정보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또한, AI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 척도 구성

실증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IF=5.8)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국내 도입 ‘이중항체 치료제’ 무진행 생존기간 3배 연장 확인

서울성모 박성수·민창기 교수팀,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 대상 범용성·현장 적용성 높아



박성수(왼쪽)·민창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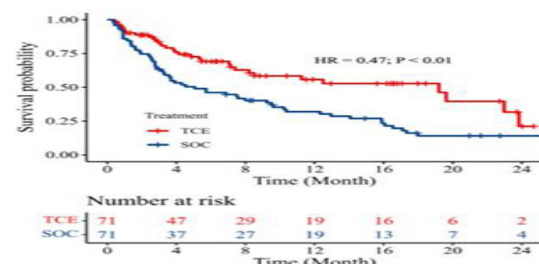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박성수(공동교신저자)·민창기(공동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약리학교실 최수인(공동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국내 도입된 이중항체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한 첫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다발골수종은 대표적인 혈액암 중 하나로, 재발이 잦고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상황인데 환자의 면역세포를 직접 활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

는 ‘이중항체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중특이항체 치료법(BiTE, Bispecific T-cell Engager)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하거나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중항체 치료는 범용성과 현장 적용성이 월등하여 CAR-T 세포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면역제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142명을 대상으로 이중특이항체 치료군(7명)과 기존 표준 치료군(7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중특이항체 치료군에서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기간이 기존 표준 치료 대비 약 3배 가량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였으며, 일부 환자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경미한 수준인 등 우리나라 환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기존 표준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이중항체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암의 진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자들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세포치료학회지 《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IF=3.6)에 최근 게재됐다.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길, 그리고 사이클이 가져온 변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담췌외과 윤영철 교수



한 손에는 메스, 한 손에는 핸들바를 잡다

장시간 이어지는 고난도 수술,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단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외과 의사에게 주어진 숙명은 치열하다. 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단련하며 삶의 균형을 찾는 이가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담췌외과 윤영철 교수. 그는 오랜 시간 간이식과 간담췌외과 수술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무대에서 그는 사이클 페달을 밟으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환자를 위한 끝없는 도전

윤영철 교수는 간이식, 간암, 간경변, 담관암, 췌장암, 담석증을 전문으로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간이식, 간절제 수술, 췌장 수술, 기타 간담췌 관련 고난도 수술을 수행하며 인천성모병원의 이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현재 간이식 수술에서 담도합병증과 췌장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면역학적으로 거부반응을 줄이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술을 수행하는 외과 의사로서 보다 도전할 부분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이며, 환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설립과 성장

윤 교수는 인천성모병원의 장기이식센터 설립에 핵심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다. 2011년 부임 직후부터 간이식 프로그램 구축

을 계획했지만, 당시 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인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경험도 없었다.

“병원장님과 행정부원장님을 찾아뵙고 장기이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장기이식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보직자들과 윤영철 교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병실과 중환자실 개조, 수술 장비 확보, 의료진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윤 교수는 회상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2년 첫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2013년 첫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이식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간담췌외과를 선택한 계기

“레지던트 시절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중, ‘하얀거탑’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외과 의사들이 수행하는 고난도 수술에 매료되었고, 특히 간담췌외과가 가장 도전적인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간담췌외과에서 임상강사로 다양한 수술을 경험하며 본격적으로 간이식과 간담췌외과 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갔다. 당시의 경험은 현재의 그를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미국에서 최초로 간이식을 실시했던 LA의 USC KECK 병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깊이 있는 간이식 관련 수술과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를 위한 특별한 수술 준비 루틴

윤 교수에게 수술 전 가장 중요한 과정은 ‘검사데이터 점검’이다.

“사람의 기억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 반드시 환자의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맡은 외과 의사로서,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사이클이 가져온 건강한 변화

의사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윤 교수는 사이클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2019년 미국 연수를 마친 후 코로나19 시기에 바빠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체중 증가와 함께 지방간, 고혈압, 당뇨 전단계까지 오면서 결국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기억을 떠올리며 로드 사이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사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도 줄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긴 수술에 필요한 체력도 길러졌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윤 교수는 주중 퇴근길을 활용해 사이클을 탄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압구정동 집까지 약 46km 거리인데,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라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밝혔는데, 출근은 지하철을 타고 자전거 두 대를 운용하여 퇴근길 자

전거 타기를 지속하고 있다. 병원에서 굴포천까지 이동 후, 압구정동 집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멋진 경관을 보면서 이동에 큰 어려움 없이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따로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퇴근 시간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장시간 계속 즐거울 수 있는 운동은 사이클링이 유일한 것 같다.”라는 윤 교수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사이클 대회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여하고 있다. 2024년 1년간 사이클을 탄 거리는 약 6,000km, 안장에 앉아 있던 시간만 266시간에 달한다. 특히, 미시령과 한계령같이 경사가 높은 구간에서 진행되는 설악 그란폰도 대회도 참가해 러너스 하이와 같은 짜릿한 성취감을 즐기기도 한다.

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윤영철 교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수술을 맡겨주신 환자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환자들에게 그의 심정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간이식 및 간담췌외과 분야에서 더 발전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참 인술을 펼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2025년 CMC 핵심가치실천 공모전' 당선작 발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월 CMC 직할기관 교직원 및 부서, 자선진료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CMC 핵심가치실천공모전' 당선작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가치실천 수기(교직원) 부문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운영팀 유진아 간호사의 "기대와 용기 '부활의 종'"이 대상, UCC 부문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수술간호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성, 한 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의 수기 부문 수상작들은 곧 출간될 전자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자 명단



수기

- ▶ 대 상: 서울성모 암병원운영팀 유진아
- ▶ 우수상: 서울성모 내과중환자실Unit 김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팀(부서) / 여의도성모 7층 서Unit 김지인 / 의정부성모 외상외과 김마루 / 부천성모 나06병동Unit 곽지현 / 은평성모 장기이식병원운영팀(부서)
- ▶ 장려상: 서울성모 9Unit 박은영, 101Unit 김현주, 간호1팀(부서), 131Unit 장은주, 암병원운영팀 진료운영Unit 이혜정, 가정간호Unit 최의경 / 여의도성모 일반활영Unit 이동후 / 의정부성모 외래검사Unit(부서) / 부천성모 간호부(부서)
- ▶ 참가상: 77개 작품

UCC(동영상)

- ▶ 대 상: 서울성모 수술간호팀(부서)
- ▶ 우수상: 서울성모 중환자간호팀(부서) / 의정부성모 영양팀(부서)
- ▶ 장려상: 서울성모 간호3팀(부서) / 여의도성모 응급간호Unit(부서), 12층Unit(부서)
- ▶ 참가상: 8작품



(수혜기관명)

- ▶ 대 상: 서울성모(1작품)
- ▶ 우수상: 서울성모(1작품), 여의도성모(1작품), 의정부성모(1작품)
- ▶ 장려상: 서울성모(1작품), 여의도성모(1작품), 의정부성모(1작품), 부천성모(1작품)
- ▶ 참가상: 47작품



“기대와 용기 ‘부활의 종’”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운영팀 유진아 간호사

통원주사실로 근무지를 옮기고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개원한지 몇 달 되지 않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울며 꼭 낫고 싶다고 했던 환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며 항암치료를 받다, 치료 효과가 없다며 울던 환자 등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하나 고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께서 미국엔 항암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종을 치며 “이제 항암치료 끝났어요.”라고 외치는 세레머니가 있다고, 통원주사실에서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종을 설치할 때만 해도 저희는 어느 환자가 항암치료 끝났다고 외치며 종을 치겠냐며 종치는 세레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종을 설치하고 신부님께서 그 종의 이름을 ‘부활의 종’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종,’ 처음에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부활의 종’을 쳤던 날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항암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조용히 다가가 “혹시 부활의 종이라고 마지막 항암을 기념하여 종을 치는 세레머니가 있는데

하시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라고 속삭이듯 이야기했는데 환자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정말요? 네!!”라고 정말 하고 싶은 듯 대답하였고 저는 순간 어떻게 세리머니를 도와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환자의 항암치료가 끝나고 환자와 보호자를 ‘부활의 종’ 앞으로 불렀습니다. 많은 간호사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환자가 처음 진단받고 오늘 마지막 항암치료까지 잘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종을 3번 크게 치시라고 말씀드렸고 환자는 종을 한 번씩 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위에 환자, 보호자들도 박수를 크게 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을 치며 사진 찍는게 창피할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이상황을 이겨내고 있고 ‘부활의 종’이라는 타종 세리머니를 통해 정말 이 고통이 끝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주위의 환자, 보호자

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고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서 종을 치고 사진을 찍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끔 다른 환자가 종소리를 듣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저는 신나는 목소리로 “환자분도 이제 항암치료 몇 번 더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 힘내세요.”라고 말합니다. 또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치료제를 바꾸는 환자에게도 “우리 이번 치료도 열심히 해서 부활의 종 치고 나가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호자는 ‘부활의 종’ 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맞추고 환자에게 선물할 상패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부활의 종’은 항암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기대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통원주사실의 희망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사 파업으로 인해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2배로 늘어 통원주사실은 어느 때보다 정신없고 바쁩니다. 하지만 환

자들의 칭찬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건 통원주사실만의 환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 중 부활의 종은 환자에게 큰 목표이자, 기대와 용기입니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기대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부활의 종’이 있으면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오랜 입원 끝에 퇴원하는 날을 기념하여 또는 임종환자를 위해 그동안 아픔과 싸우느라 고생했고 좋은 곳에서 잘 지내라는 의미를 담은 어떠한 세리머니가 있다면 환자를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수기는 축약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곧 출간될 전자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그 이상,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다면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운영팀 유진아 간호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CMC 핵심가치와 행동규범 실천의 일환으로 각 산하병원 현장에서 직원들이 노력해 온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매년 'CMC 핵심가치실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수기 부문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유진아 간호사가 담담한 문장으로 암 환자를 돌보아 온 지난 18년과,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대와 희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유 간호사를 직접 만나 그가 실천하고 있는 CMC 핵심가치와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공모전에는 어떻게 응모하게 되셨나요? 대상을 받은 작품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동료 간호사 등을 통해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암 환자를 간호하며 경험했던 순간들이 현재의료원 경영방침인 '기대와 용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진솔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암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저와 만난 많은 환자, 보호자들은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암 치료와 간호에만 집중하던 저에게 환자, 보호자의 정신적 아픔까지 헤아리고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환자, 재발해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 등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항상 고민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의 종'이 통원주사실에 설치됐고, '부활의 종'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보호자의 기대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환자가 마지막 항암치료를 축하하며 '부활의 종'을 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통을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됨을 모두 함께 축하해 주면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기대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치료를 받으러 통원주사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지만 희망도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혈액종양내과에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환자를 보는 것도, 환자가 임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간호를 하더라도 끝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과 맞닿으면서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내 할 일만 열심히 해내는 간호



를 이어가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대하는 환자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입은 제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눈은 굉장히 슬퍼 보였고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환자들을 볼 때, '이 분이 내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면서 다른 모습보다도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고 있을 아픔과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우리 가족, 친한 친구,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환자분들을 들여다보면 그 아픔이 뼈저리게 다가 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은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 때도 환자분한테 조금 더 위생적이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행동하게 된 스스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부활의 종'이 통원주사실에 갖는 의미가 크다고요.

지난해 9월 처음 통원주사실에 '부활의 종'이 도입되었을 때, 사실 간호사들 사이에서

는 회의적인 반응이 컸습니다. 항암치료가 끝났다고 환자가 사람들 앞에서 종을 치는 세리머니라니, 우리나라에서는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환자분들께서 너무나 기쁘게 참여하셨습니다. 여러 환자와 보호자들 앞에서 간호사는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아프지 않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분들이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종을칩니다.

그 뒤로는 부활의 종을 치는 걸 미리 알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상패와 꽃다발, 편지 등을 준비해 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병원 통원주사실의 큰 이벤트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술 이후에, 혹은 재발 이후에 다시 항암치료받는 한이 있어도 꼭 종을 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은 힘든 시간을 겪고 보내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활의 종을 통해서 위로뿐만 아니라 저절로 치겠다는 기대와 용기까지 북돋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인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간호사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부활의 종'을 치고 간 환자가 다음 외래 진료 때 그동안 고마웠다면 6층까지 올라와 인사를 하고, 항암치료를 마친 환자들 이 우리를 생각하며 적은 편지를 주고, 글이 병원에 전시된 것을 보면 간호사로 일하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환자들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갑작스레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 저의 간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믿고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자의 몸과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간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저희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마주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간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환자와의 매 순간을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기쁨, 불안, 걱정을 함께 진심으로 나누며 이러한 경험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일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자신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환우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는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기에 동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강점을 칭찬하면서 그러한 팀워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합니다.

세계적 첨단 의료를 지향하는 부인암 치료 여성이 행복한 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인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명동성모병원을 모태로 하여, 오랜 치료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부인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산부인과,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를 담당하는 30여 명의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여 질환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진단 및 치료 지침을 운영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인암센터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암, 질암, 외음부암, 융모상피암 등을 주 진료 분야로 하며, 각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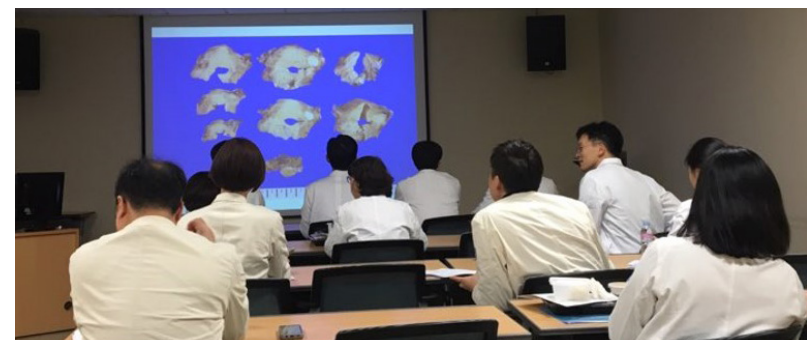


첨단 의료 기술과 연구 중심 치료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최신 의료 기술과 연구를 접목한 치료를 제공하며, 다학제적 협진과 최소 침습 수술, 정밀 의료를 통해 5,000례를 달성하며, 부인암 수술뿐만 아니라 가임력 보존 치료에서도 국내 최다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학제 협진과 환자 중심 평의 진료 시스템



산부인과 부인종양 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부인암을 담당하는 종양내과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부인암 담당 교수, 영상의학과 골반영상 담당 교수, 핵의학과 교수, 병리과 부인암 담당 교수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협진을 넘어, 초진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자리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여러 진료과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최첨단 로봇수술과 vNOTES 기법



다빈치 Xi 4대, SP 1대를 포함한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vNOTES(질을 통한 자연 개구부 내시경 수술) 기법을 활용한 로봇 암수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기존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로봇을 이용한 vNOTES는 더욱 정교한 시야 확보와 섬세한 조작이 가능해 신경 보존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통증과 회복 속도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통증 점수(NRS)가 평균 2~3점 낮고, 진통제 사용량이 30% 이상 줄며, 초기 부인암 환자는 수술 다음 날 퇴원 가능하다.



ERAS 프로토콜 적용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있다. 수술 후 금식 시간을 최소화하고 조기 영양 공급을 통해 회복을 촉진하며, 맞춤형 통증 관리와 조기 보행 프로그램을 적용해 입원 기간을 줄인다. 또한, 최소 침습 수술 기법과 적극적인 수액 조절, 마취 방법의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회복 속도를 높인다. ERAS를 적용한 환자는 평균 입원 기간이 20~30% 단축되고, 합병증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튜이티브 허브



암센터입니다



통한 맞춤형 치료가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 또한, 최근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는 로봇수술

감시림프절 형광 카메라를 활용한 맞춤형 림프절 절제술



불필요한 림프절 절제를 줄이기 위해 감시림프절 형광 카메라를 활용한 최신 술기를 도입하고 있다. 형광 물질(ICG)을 주입해 전이 가능성이 높은 림프절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인다.

이 기술은 자궁내막암 및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 중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해 림프부종 발생률이 40% 이상 감소하며,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현재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적용 중이며,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와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서울성모병원은 다빈치 로봇수술기 제조사인 미국 인튜이티브로부터 '에피센터 튜터'로 지정되어 국내외 의료진에게 수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튜이티브 허브를 이용하여 라이브 부인암 로봇수술을 시행하면서 국내외 수술 자들과 tele-conference 형식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진과 MOU를 맺으며 최첨단 로봇수술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의료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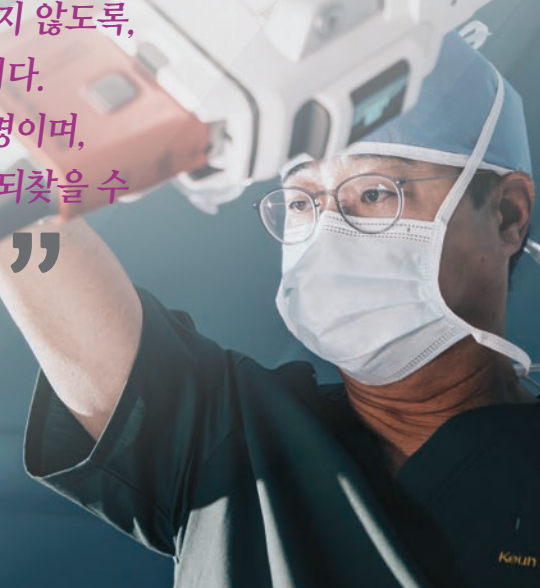
환자 중심 치료 철학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단순히 치료를 넘어, 환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인적 치료를 목표로 한다. 암 환자들에게는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심리 상담 및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첫째, 환자는 혼자서 아닙니다.** 부인암센터의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지원팀이 환자의 치료 여정을 함께하며, 모든 단계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 둘째,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며, 따뜻한 돌봄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셋째,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정기 검진과 빠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센터는 최첨단 진단 장비를 통해 부인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넷째, 희망과 혁신이 있습니다.** 센터는 끊임없이 최첨단 치료법과 연구에 투자하며,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부담이 적은 치료를 제공합니다.

“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여러분의 걱정을 깊이 이해하며, 공감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인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여러분이 이 여정을 홀로 견지 않도록, 저희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우리의 사명이며,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인암센터장 이근호 교수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얼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판판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사실 얼굴의 뺨속에는 몇 개의 구멍이 뚫린 빈 공간이 있다. 이런 두개골 뼈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들을 '코 옆에 있는 동굴들'이라는 의미에서 '부비동'이라고 부른다. 이 공간은 머리 뺨속에 있는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거나 체온 조절을 해 주는 기능까지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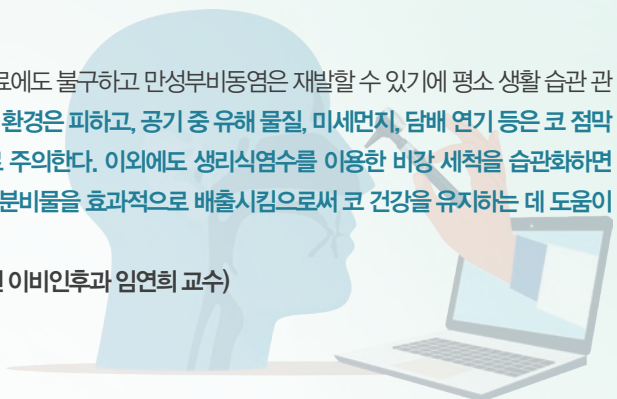
이러한 부비동은 크게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접형동이라는 4개 구조로 구분되며, 작은 구멍을 통해 콧속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코 안이 환기되고 부비동 내의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코를 통해 배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면 콧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는 것이 부비동염이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만성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염증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으로, 일반 감기와 달리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자연 치유가 어렵다.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코막힘, 끈적하고 누런 콧물, 얼굴 통증 및 압박감, 후비루(목으로 넘어가는 콧물), 후각 저하 등이며 특히, 농도가 짙은 콧물과 함께 눈 주위나 이마, 광대 부위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만성부비동염을 의심해야 한다.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비강 내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투여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자가비강 세척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항생제, 혈관 수축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경구 스테로이드제 등을 병행한다. 만약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특히 진균성 감염, 비용종, 종양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많이 시행되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코 속으로 내시경과 기구를 넣어 병변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출혈과 수술 부위 부종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부비동염은 재발할 수 있기에 평소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건조한 환경은 피하고, 공기 중 유해 물질,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은 코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외에도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을 습관화하면 코 점막을 가습시키고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수: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임연희 교수)



Health&Issue

봄철 기침은 전부 알레르기일까?

봄이 되면 기침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설 새 없이 나오는 잔기침, 심하면 구역질까지 이어지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봄철 기침은 알레르기로 치부하기 쉽지만, 기침과 관련한 호흡기질환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알레르기 기침 꽃가루, 황사 등으로 잔기침 지속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기침은 코 점막이 꽃가루, 황사, 집먼지 진드기 등의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속적인 재채기 발작,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다른 증상 없이 잔기침만 지속되기도 한다.

● 천식은 발작적인 마른기침과 야간에 악화

잔기침이 낫지 않고 오래간다면 천식 때문일 수도 있다. 기관지 천식은 발작적인 마른기침과 야간에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담배 연기, 자극적인 냄새, 운동, 찬 공기 등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쌉쌉거리는 천명음, 호흡곤란 등 전형적인 천식의 증상을 호소한다.

● 위식도 역류질환, 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 나타나기도

위식도 역류 질환도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위식도 역류는 위산 등이 식도 내로 역류돼 가슴앓이, 신맛을 자주 느끼는 등의 증상으로 느끼지만 증상 없이 단순 기침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치료로는 식도괄약근을 약화시키는 담배, 커피, 초콜릿 등을 삼가고, 식후 바로 눕지 않고, 과식과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위산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을 사용한다.

● 심장질환도 마른기침... 자세 바꾸면 증상 호전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호흡곤란이나 마른기침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누운 자세에서 악화되므로 자세를 바꿔 앉은 자세를 취하면 기침이 호전된다. 또 심장 이상일 때는 가래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있다 해도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가래와 전혀 다르다. 거품이 섞인 빨간색 혈흔이 있을 경우가 심장 이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래가 노란색을 보이면 대부분 호흡기질환이 원인이다.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박연희 교수

진료 분야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폐종양
진료 시간 [오전] 화 [오후] 월, 수, 금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4.21.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김*희
박*림
이*정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소아혈액 환아, 완치 기념메달과 새로이 출발해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중증 소아혈액종양 환자의 완치를 축하하는 '제25회 온드림 치료종결잔치'를 개최했다. 온드림 치료종결잔치는 힘겨운 투병생활을 견디고 중증 혈액질환, 소아암 치료를 마친 환우들을 위한 행사로, 2012년부터 서울성모병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미래세대 희망의료 사업에 대한 공동 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종결잔치는 4중주 연주, 메달수여식, 미술공연, '치료과정을 통해 성장한 우리'를 주제로 한 환아 다큐멘터리 시청, 환아 및 보호자 치료종결 소감문 낭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소아혈액 완치 어린이 111명에게 치료종결 메달과 선물을 수여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전문적이고 우수한 혈액투석 시행 입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릴레이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연달아 획득하며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투석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혈액투석 적절도, 정기검사 등 진료의 과정 및 결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는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1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일 병원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 구조적인 부문과 진료과정 및 결과 부문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수질검사 실시 주기 충족 여부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X인 충족률 등이 평가 지표로 확인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들은 위 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자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의료서비스인 만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성모병원 폐암 다학제 통합진료 1,000례 돌파

호흡기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들 협력해 최적의 치료 도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폐암 다학제 통합진료 1,000례를 돌파했다.

인천성모병원 폐암팀은 2021년 11월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를 중심으로 신설된 이후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1,000례 돌파를 이뤄냈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개별화된 치료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에 가톨릭

대 인천성모병원은 호흡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학제 통합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폐암팀은 매주 두 차례 점심 시간과 오전 외래 진료 이후 시간 등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성모병원 폐암팀에는 호흡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 등이 참여해 폐암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최적의 치료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서중희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폐암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수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최적의 치료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유강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방사선치료는 특히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상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단일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질환으로, 여러 전문 분야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통합진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폐암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천성모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우수기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2024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는 대한병원협회와 서울대 임상간호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시행한 것으로 전국 82개 기관이 참여, 부천성모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별 각각의 7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부천성모병원은 국내 최초로 신규 간호사를 전담해 코칭하는 NRP(Nurse Residency Program)를 도입하고 프리셉터(Preceptor)를 양성하는 등 간호사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일찍이 구축해 온 바 있다.



성빈센트 중증환자위한무균치료실 확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최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리모델링은 기존의 101병동과 조혈모세포이식(BMT)병동을 하나의 병동으로 통합하고 무균시설 업그레이드 등의 환경 개선을 진행했으며, 91병동의 입원 시설 및 환경을 재단장했다. 특히, 최신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무균치료실을 6병상으로 확충하고, 준무균치료실 8병상을 신설해 중증환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감염 관리와 면역 회복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무균치료실은 첨단 공조 시스템과 HEPA 필터를 적용한 양압 시스템을 통해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이나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회복을 도모한다.





성의교정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파트너 선정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코이카(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아카데미 파트너) 연구조사트랙 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김수정 부교수, 강재진 연구강사, 경민정 연구강사, 배민주 간호대학 조교로 구성되어, 2025년 8월까지 베트남 현지 컨설턴트와 함께 '베트남 완화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일차의료시스템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베트남에 적합한 완화의료 모델을 제시해 베트남 완화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의도성모병원

워킹화 100결레 후원받아



여의도성모병원이 신발 브랜드 '클라우드제로(대표 안영환)'로부터 워킹화 360플러스 100결레를 후원받았다. 이번 신발 후원 캠페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성모병원이 처음으로 지명되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워킹화 100결레를 병원 내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응역업체 근무자, 한국에스웨이, 베올리아 직원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성모병원

KB손해보험 · 경민대 의료지원 3년째 지속



의정부성모병원이 의정부 연구 프로배구팀인 'KB손해보험 스타즈'의 홈경기 의료 지원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홈경기 18경기에 걸쳐 응급의료, 관중 안전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대학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8·15 건강걷기대회, 경민광장 행사 의료지원으로 연을 맺은 경민대학교와 KB손해보험 스타즈의 홈경기 운영을 함께 지원하며, 스포츠, 의료,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6주년 기념 꽃 봉헌식 거행

은평성모병원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 16주년을 기념해 꽃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번 꽃 봉헌식은 자신을 '바보'라 칭하며 장기이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난



고(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기억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매년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장기이식병원 내 '기억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조성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소중한 생명 나눔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기부금 전달받아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천주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최인비 신부)으로부터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기부금 2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주관한 '제3회 바다의 별 축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청소년사목국은 매년 의료 소외계층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소속 학생들은 기부금 전달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기부금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로봇수술 700례 달성



의정부성모병원 외과 김기환 교수가 최신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한 로봇 체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여 단독 700례 수술을 달성했다. 이는 의정부성모병원의 최소침습수술 노하우가 차세대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의정부성모병원 권역행정Unit 한정익 대리가 지역외상 체계 구축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는 경기도가 도내 참여의식 확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외상 체계 구축에 힘쓴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 대리는 지역외상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성래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 재무이사 및 경인지회 부회장, 질병관리청 전문자문위원 등 활발히 활동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한검안학회 회장 선출



부천성모병원 안과 김은철 교수가 대한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12대 대한검안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각막이식, 백내장 및 전안부 분야의 권위자로서 최근 한국건성안학회 학술상 최우수상 수상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 온 바 있다.

APOA HULS 최우수 발표상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박일중 교수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 수부상지 학술대회에서 수부 분야 최우수 발표상의 쾌거를 이뤘다. 박 교수는 '어떤 재건술이 주상월상 해리를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가. 사체를 이용한 생체역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이번 상을 받았다.

인천성모병원 '올해의 교수상'



인천성모병원이 '2024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신석준 신장내과 교수(진료부문), 이운정 응급의학과 교수(소통부문), 최준영 호흡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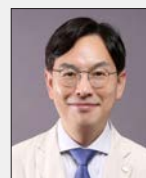
교수(연구부문)를 선정했다. 세 교수는 헌신적인 환자 진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 확산, 임상의학 연구 발전 등 병원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의 교수상은 진료, 연구,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의 발전에 기여한 의료진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북미두개저학회(NASBS) 초청강연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김경일 교수가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5 북미두개저학회 연례 회의 및 제9차 세계두개저학회연맹 국제 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한국의 내시경 두개저 수술 후 관리 전략 프로토콜을 발표해 전 세계 의료진들의 주목을 받았다.

과기부 기초연구 선정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기 교수가 과기부 기초연구 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는 '분자량에 따른 달팽이관 표적 약물의 최적 전달 플랫폼 구축'으로, 김 교수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은평성모 저소득층 위한 사랑의 헌혈증 기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 3월 10일 영성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헌혈 활동에 적극 동참해 모은 '사랑의 헌혈증' 106장을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에는 진단검사의학과 교직원 및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기부된 헌혈증은 병원 내 저소득층 환자의 수혈 비용 감면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제훈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생명과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증 기부에 참여해 준 교직원 및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열어 교직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접적인 혈액 수급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씩 모은 용돈이 큰 나눔이 됩니다 정우진 어린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은 용돈 기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이용한 정우진 어린이가 지난 3월 4일 4,556,430원을 소아청소년환자의료팀(술술바람)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정우진 어린이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술술바람'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정우진 어린이의 어머니는 "술술바람 선생님들께서 우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따뜻한 보살핌과 많은 관심을 주셨다."고 전하며 "아이와 가족을 위한 헌신에 많은 위로가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우진이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을 하루하루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다. 모은 용돈은 퇴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캥거루를 선물로 보고 싶어 호주여행을 가자고 했었다."며 "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다. 우진이가 소중히 모은 용돈이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길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후원 계기를 밝혔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은 정우진 어린이의 기부금을 술술바람 발전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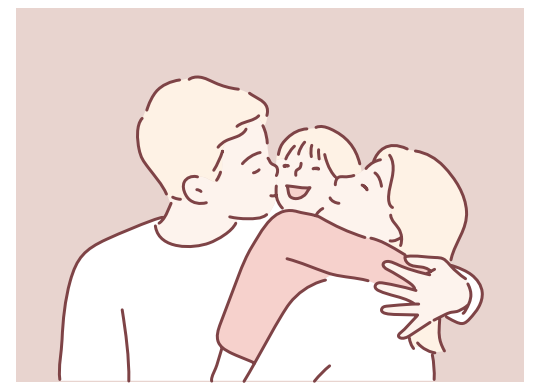
첫돌에 첫 번째 나눔을 함께 맞이합니다 김이현 어린이, 첫돌 기념 1백만 원 기부

첫 생일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며 지난 3월 4일 소아 환아 치료를 위해 1백만 원의 기부금을 보내 온 어린이가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태어난 김이현 어린이는 지난 2월 건강하게 첫돌을 맞이했다. 김연진·김지수 부부는 "이현이가 태어나 건강한 첫돌을 보내고 기념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하며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건강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후원 계기를 밝혔다.

또한, 김연진·김지수 부부는 "이번 기부로 아이가 이웃을 돌아보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후원회사무국은 소중한 기부금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소아 치료와 진료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이안림 매월 10,000원	이희주 15,000원
2025년 덕담 세뱃돈 봉투 이벤트 174명	1,890,000원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익명 7,000,900원
이희주 5,000원	이미연 50,000원
이청흠 100,000,000원	이혜정 3,000,000원
최미화 30,000원	최서연 500,000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김이현 1,000,000원	서자영 20,000원
양지안 3,650,000원	

대학(성의교정)

• 간대발전기금(위임)	박선남 10,000,000원
• 김광순장학금	김광순 5,000,000원
• 사서팀(도서관)	정소나 5,000,000원
• 신경과학교실 발전기금	김범생 4,500,000원
• 아산사회장학금	
(제)아산사회복지재단	10,000,000원
• 옴니버스 파크	김범생 500,000원

전신수 4,000,000원	치과학교실 1,450,000원
• 정수장학회 장학금	정수장학회 4,074,000원
• 치과학교실 발전기금	치과학교실 13,050,000원

서울성모병원

• 성모자선회

익명1 10,000원	익명2 55,000원
이상학 매월 20,000원	김혜영 매월 30,000원
류귀복 매월 10,000원	문초희 매월 20,000원
위은숙 매월 5,000원	정찬영 매월 3,000원
차바우나 매월 2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김대준 50,000원	천정욱 500,000원
김수영 매월 100,000원	조정숙 매월 20,000원
김윤진 매월 100,000원	조현희 매월 10,000원
• 위임(기부자별관리)	유한태 550,000원
유니티드(주)	3,000,000원
• 위임(선입선출관리)	익명 10,000원
• 소아 질환 지정(기부자별관리)	
조해신 10,000,000원	

• 소아청소년환자의료팀(술술바람) 발전기금

박해진 10,000원	류홍인 10,000원
사랑나눔회 3,311,905원	이수연 200,000원
임가영 120,000원	정우진 4,556,430원
유인영 매월 30,000원	윤국로 매월 10,000원
• 갑상선내분비외과 연구기금	하은정 300,000원
• 직업환경의학센터 발전기금	이이령 매월 20,000원
이재웅 매월 30,000원	조범석 매월 20,000원
• 헌물(지정기부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48,700원

여의도성모병원

• 성모자선회	곽지윤 매월 10,000원
권현욱 매월 20,000원	김영렬 매월 20,000원
김예경 매월 10,000원	김은미 매월 20,000원
사유진 매월 30,000원	오선희 매월 20,000원
유정민 매월 10,000원	이도경 매월 10,000원
채민경 매월 1,000원	김현중 50,000원
• 여의도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고은경 1,00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주식회사 에이투먼트엔터테인먼트	2,5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강윤정 100,000원	풍동성당 4,635,000원

부천성모병원

• 성가자선회	경기도의사회 329,660원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80,400원	송란희 매월 2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김호연 50,000원	이금자 250,000원

은평성모병원

• 은평성모자선회	
천정은(윤석현) 200,000원	형경애 매월 1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故 윤정숙 300,000원	故 이기복 300,000원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익명 11,000원	여하준 1,050,000원
한창희 1,000,000원	김은희 매월 1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1~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근골격계 특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산·학·연·병 협력 구축

개인 맞춤형 재활치료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 개발 박차

가톨릭대학교는 최근 교원 창업기업 (주)올쏘케어(대표 김중호 ·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공동연구 협력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근골격계 특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외래 환자 수 1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은 수술 후 일정 기간 관절을 움직이지 못해 운동범위 감소와 근력 약화가 필연

적으로 동반되므로, 꾸준한 재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본인의 재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는 부족했기에 가톨릭대 의대 정형외과 학교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그리고 (주)올쏘케어가 협력해 국내 최초 ‘근골격계 특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중호 교수 연구팀은 동작분석 AI 및 CMC nU CDW 데이터를 활용한 수술 후 재활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는 환자가 집에서도 쉽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개인 맞춤형 피드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여의도성모병원 재활의학과와 장소연 교수팀과 함께 오십견 및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승인 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김중호 교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정형외과학교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 데이터를 제공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산·학·연·병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중호 교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를 통해 본 아이디어를 출품, 대상을 수상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외 특허 7건을 출원하였으며, 2024년 초 (주)올쏘케어를 설립해 겨자씨키움센터 통한 최초의 교원 창업 사례를 기록했다.

인천 성모

‘소아재활 난독증 클리닉’ 개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한 ‘소아재활 난독증 클리닉’을 새롭게 개설했다. 소아재활 난독증 클리닉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개설됐다.

난독증은 지능과는 무관하게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발달장애로, 조기 발견과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난독증 클리닉은 장대현, 김재원, 주선영 재활의학과 교수가 진료를 맡아, 전문의의 진료와 평가를 통해 ▲인지재활치료 ▲언어치료 ▲학습 전략 교육 ▲심리,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난독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와 차별 없는 이주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 감액,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도 참석해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인천 지역 이주민 현황과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솔 원목실장은 “이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배려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 조직문화혁신 TFT 2기 성과 발표회 개최

행복한 병원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성과 발표 및 공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최근 수원 라마다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조직문화혁신은 TFT-2기’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향심 교수의 조직문화 관련 강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과

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빈센트병원은 2023년부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행복한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틀을 마련한 1기 활동에 이어 지난해 5월 Vincent Vibe TFT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조직문화혁신 TFT(Vincent Vibe TFT) 2기는 총 인원 65명으로 8개의 그룹(다면평가 개선 연구팀, 상호교류를 위한 친목 사업팀, 교육 사업팀, 소통을 위한 사업팀, 행사 사업팀, 빈센트 지식인 구축팀, 동호회 창설 및 활성화 지원 사업팀)으로 나누어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부서러운딩 ▲빈센트를 바꾸는 시간, 15분 ▲교직원 특강 ▲교직원 자녀 수능 응원 선물 전달 ▲동호회연합회 홍보의 날 ▲빈센트 복면가왕 ▲교직원 알뜰장터 오프라인 마켓 ▲직원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있으며,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직원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성빈센트병원은 앞으로도 1기와 2기의 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희망을 향해 걸어온 우리,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소아혈액 환아 11명, 완치 기념메달과 함께 새로운 출발

지난 2월 1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특별한 축하의 장이 열렸다. **중증 소아혈액질환과 소아암을 극복한 어린이들**이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제25회 온드림 치료종결잔치’**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아암과 혈액질환을 극복한 **11명의 어린이에게 치료종결 메달과 선물**이 수여되었으며, 축하 공연과 다큐멘터리 상영, 소감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감을 발표한 한 학부모는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축구선수를 꿈꾸는 강민재 군의 이야기**가 감동을 더했다. 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힘든 치료를 견뎌낸 그는 2023년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꾸준한 노력 끝에 2025년 유소년 리그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다. 강 군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치료를 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완치 환아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두 사람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간염
지방간



소화기내과
양경모

[오전] 수, 금
[오후] 화



급성신부전
고혈압



신장내과
이소영

[오전] 수
[오후] 화, 금



두통
파킨슨병



신경과
박성진

[오전] 목, 금, 토(2주)
[오후] 화, 수, 금(2주)



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뇌건강센터
김성환

[오전] 화, 토(1주)
[오후] 월, 화, 수, 금



안면외상
수부외상



성형외과
이초롱

[오전] 수, 금
[오후] 월, 수



자궁근종
난소낭종



산부인과
신인혜

[오전] 금
[오후] 월, 목, 금



황반
포도막



안과병원
전승희

[오전] 월, 화, 수
[오후] 목



코골이
수면무호흡



이비인후과
강윤진

[오전] 화, 수
[오후] 금



두경부암
갑상선암



이비인후과
김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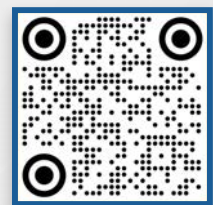
[오전] 수, 목
[오후] 월



산부인과병리
내분비병리



병리과
최규희



2025
신규 의료진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스포츠 안전 위해 하나로!

의정부성모병원·KB손해보험·경민대 의료지원 3년째 지속

의정부성모병원의
지속적인 의료지원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안전망 구축



조기암 치료하는 치료내시경 전문 부천성모병원 내시경센터

- ✓ 매년 2만여 건 이상 내시경 시술 시행
- ✓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인증 우수내시경실
- ✓ 감염에는 안전하고 환자는 편리한 환자 중심 공간 구성
- ✓ 환자별 1:1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내시경 전담 간호사 상주



- 위장관 조기암 내시경 절제술
- 내시경 초음파
- 위장관 출혈 지혈술
-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 ERCP(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
- 위루술
- 캡슐내시경
- 위장관 스텐트 삽입술 및 확장술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은평성모병원 암센터 **항암주사실 확장!**

신속하고 쾌적한 최상의 치료 환경 제공

- ✓ **운영시간** : 평일 8:00 ~ 17:00
- ✓ **이용절차** : 외래진료→접수→치료
- ✓ 기존 18개 → **26개 병상 확대**
- ✓ 치료 전후 환자 **대기시간 최소화**
- ✓ **환자 전용 물품 보관함** 신규 설치
- ✓ **쾌적한 대기공간** 조성

항암주사실

Outpatient Chemotherapy Room